

동아시아 여대생들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존중감: 한국, 중국, 일본의 비교

김 완 석[†]

아주대학교

김 정 식

웨스턴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 삼국 여대생의 신체가치와 신체존중감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n=168)과 중국(n=108), 일본(n=152)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에 관한 가치로서 조작성, 편향성, 평가소재와 사회적유용성을 측정하였고,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를 이용해서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 건강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신체의 자의적 변형에 대한 수용정도는 일본이 가장 높았고 중국이 가장 낮았다. 건강에 비해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은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높았고,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는 경향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보다 높았다. 신체의 외모나 건강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일본과 중국의 순이었다. 한국 여대생은 외모존중감은 가장 높고 건강존중감은 가장 낮은 반면, 일본 여대생은 건강존중감이 가장 높고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은 가장 낮았다. 중국 여대생은 체중존중감이 가장 높았다. 네 가지 신체 가치는 외모와 체중존중감과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건강존중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연구결과와 함의를 논의하고 향후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신체가치, 신체존중감, 국가비교

[†] 교신저자 : 김완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wsgim@ajou.ac.kr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표상을 망라하는 다차원 개념이다. 신체이미지는 자기이미지 또는 자기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신체경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나 평가가 만연해 있으며, 그 결과 섭식장애, 신체이미지 장애, 과도한 운동이나 다이어트, 성형수술, 성적인학대나 기능장애, 인간관계의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Garner, 2002; Stice, 2002; Harrison, 2000; Jaeger Ruggiero, Edlund, Gomez-Perretta, Lang, Mohammadkhani, Sahleen-Veasey, Schomer, & Lamprecht, 2002; Kleck & Strenta, 1980; Nemeroff, Stein, Deihl, & Smilack, 1994; Nezlak, 1999; Wiederman, 2002 등).

신체이미지의 문화적 차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미국의 백인여성들 혹은 서구 문화권의 흑인, 남미계, 아시아계의 여성들을 비교하였다(Brown, Cash, & Lewis, 1989).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각 문화권 내에서도 국가, 하위인종, 그리고 하위문화에 따라 신체이미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Celio, Zabinski, & Wilefey, 2002; Gluck & Geliebter, 2002; Hall, 1995; Jackson & McGill, 1996; Mintz & Kashubeck, 1999; Mukai, Kambara, & Sasaki, 1998).

그동안 많은 비교문화 연구들에서 유교와 불교의 전통과 같은 문화역사적 공통점을 토대로 한국, 일본, 중국의 동북아시아 삼국이 비슷한 문화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했지만(예를 들면, Markus & Kitayama, 1991), 실제

로 동아시아 삼국의 경우 그러한 문화적 유사점만큼이나 다른 상당한 정치, 사회, 경제적 차이를 근래에 경험함으로써 상당히 다른 하위문화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 세기 이상 앞서서 서구문물을 받아들였고,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한 역사도 한국보다 오래다. 또한 중국은 지금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인 역사는 한국보다도 훨씬 더 짧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은 여성들의 신체에 대해 갖는 태도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 예컨대, 객체화 이론(Objectification Theory)은 여성들이 높은 신체불만족 수준이나 부정적인 신체경험을 갖는 이유가 여성을 주체로서가 아니라 타인에 보여주는 존재로 객체화하고 마른 몸매의 여성들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영화나 드라마, 광고 같은 자본주의 대중매체들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McKinley & Hyde, 1996; Fredrickson & Roberts, 1997). 유사한 맥락에서 일부 사회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신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일종의 상품이며(신체는 노동력의 매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보다 더 포괄적인 하나의 자본이다(Bourdieu, 1973; Shilling, 2000 에서 재인용).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체는 일종의 문화자본이며 따라서 신체 특성의 차이는 그 자체가 사회경제적 가치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자본주의에 노출한 역사의 차이가 다른 한중일 삼국의 여성들의 신체이미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신체이미지들이 개인의 사회적 경험과 학습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 문화적 공통점은 최근 각 국가들이 경험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동

의 차이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동아시아 삼국의 표본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국가의 여대생들의 신체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신체이미지와 관련한 새로운 개념인 신체가치관 및 신체존중감과 비교하고, 후속연구들을 위한 연구주제들을 살펴보려는 탐색적 연구로 계획하였다.

신체가치

신체이미지와 신체경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의 신체관련 가치관이다. 신체관련 가치들은 대중매체나 교육기관, 부모 등을 통해 전달되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인 신체관련 정보들에 의해 형성된다. 이런 정보들은 단순한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 개입하는 정보들이며,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들이다. 그래서, 대중매체의 드라마나 광고에 등장하는 서구적 인물들의 마른 몸매와 큰 눈, 뺨죽 죽한 턱 등의 외모 특성은 시청자들에게 하나의 ‘이상적인 외모’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신체와 관련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부모와 친구, 장난감 같은 요인들도 지적하고 있지만(Smolak, 2002) 특히 대중매체에 대한 노출을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진 대표적인 이론이 여성주의적 관점의 객체화이론이다(Fredrickson & Roberts, 1997). 이 이론은 여성들의 부정적인 신체이미지와 경험은 1) 주로 마른 몸매(slim or thin body)를 아름다운 것으로 제시하는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마른 몸매를

자신이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몸매로 내면화하고, 2) 이렇게 내면화한 이상적 몸매를 기준으로 자신의 몸매를 지각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이상적 몸매와 자신들의 실체가 차이가 있을 때 부정적인 신체이미지가 생겨나며, 3) 그 결과로 부적응적인 신체관련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체관련 가치의 형성에서 대중매체의 영향이 중요한 것이기는 해도, 학교와 종교단체는 지금도 사회적 가치관을 전달하는 매우 영향력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객체화 이론의 설명은 신체관련 가치들의 영향원을 매우 좁게 가정하고 있다. 실제 우리는 매일 상업적인 대중매체에 노출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 가고 교회나 절에 가서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학습하게 되며, 이런 학습내용에는 신체와 관련한 가치관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배울 수 있으며, 종교단체에서는 외모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신념을 배울 수도 있다. 그래서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독실한 신도들은 그들의 종교가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관계없이, 신체의 자의적 조작에 대해 부정적이며, 외모보다는 건강을 더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완석과 유연재, 2007; 김완석과 차주화, 2006).

이렇듯, 현대의 대중매체 외에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나 종교집단 등의 매체 역시 신체의 의미에 관한 가치관을 전달하고 있으며, 그 영향에 의해 형성된 신체가치관은 자신의 신체이미지와 신체다루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많은 경우 종교집단이나 학교가 전달하는 신체가치관은 최근의 시대적 흐름을 즉각 반영하는 대

중매체가 전달하는 신체가치관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같은 서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과정을 거치면서 신체가치관도 변화할 것이다.

또한 같은 사회 내에서도 성별이나 나이, 인종 수준의 하위 문화적 특성도 신체관련 가치관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나이가 많을수록 외모보다는 건강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신체에 대한 자의적 통제에 부정적이다(김완석과 차주화, 2006). 김완석 등(김완석과 김철민, 2002; 김완석과 차주화, 2006; 김완석과 유연재, 2007)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나 만족/불만족과 같은 신체관련 경험이나 신체의 유지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체관련 행동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신체가치들을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이다. 이들이 정의한 네 가지의 신체가치들은 다음과 같다.

신체조작성

이는 신체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작해도 되는가에 대한 신념을 뜻한다(김완석과 차주화, 2006; 김완석과 유연재, 2007). 이는 신체를 온전히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부모나 신 또는 자연의 창조물로 인식하는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타고난 신체의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 하는 가치판단에 관한 신념이다.

현대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고립되어 살고 있는 많은 종족들에서는 신체에 대한 인위적 조작 예를 들면, 페인팅이나 문신, 피어싱(piercing)을 비롯한 다양한 신체변형이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종교인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유교에서는 신체를

대체로 자의적 조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기독교의 신체관에 따르면, 신체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또한 신체는 정신과 분리가능하며, 주로 타락한 욕구나 사악한 욕망이 머무는 곳이어서 통제하고 금지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부활에 필요한 껍질로서 불로 태워버리거나 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체 또한 해탈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서 수행을 통해 다스려야 할 대상일 뿐,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편의를 위해 조작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유교에서 신체란 부모나 조상의 체현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어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신체란 깨끗하고 온전하게 보존해야 할 무언이지 그 자체나 일부를 마음대로 없애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 즉, 신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어서 훼손하지 않는 것은 효의 시작이라는 유교의 교리는 이 같은 신체관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김완석과 김철민, 2002).

신체편향성

이는 신체의 외모(체형)와 건강(체기능) 중 어느 것이 자신에게 더 중요한가에 대한 신념을 뜻한다(김완석과 유연재, 2007). 즉 잘 작동하는 유기체로서 신체의 기능을 더 가치있는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외양이나 외모의 아름다움을 더 중요한 것으로 보는가 하는 상대적 중요성 의식을 반영한다. 대부분의 전통적 종교와 사회적 규범에서는 외모보다는 신체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나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이며, 외모의 향상에 공을 들이는 것도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에 비해 건강을 육성하는 것은 건강한 마음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건강의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 외모는 사악한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며 그래서 드러내고 과시하기보다는 감추고 억제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외모 드러내기를 장려하는 종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체평가소재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나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의 정도를 말한다(김완석과 김철민, 2002). 이는 일종의 성격특성과 비슷한 것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자신의 내적 가치관이나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사회적 기준을 수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Nisbett(2003)에 따르면, 동양과 서양문화의 원류를 각각 중국과 그리스로 들면서 생태환경적 차이에 적응하려는 인간의 사회적 진화과정 속에서 사회문화의 다른 발전을 가져 왔으며 그 결과 문화에 따른 심리적 차이가 내재화되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사회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기반의 특성으로 인해 집합적 규범을 중시하게 되는 사회적 가치를 발전시켰으며 그래서 중국인들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장(場)의존성은 개인의 행동과정에서 타인의 시선을 더 많이 수용할 가능성을 키운다. 한편 상업과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높은 이동성을 가지며 사회집단의 불영속성에 의해 사회적 맥락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발전시켰는데, 이는

사회적 상황보다 사람이나 사물 자체에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경향이 내면화될 수 있다. Georgas와 Berry(1995)의 생태-문화 이론(Eco-Cultural Theory)도 비슷한 논지를 통해 문화에 따른 행동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동양문화권에서는 서양문화권에 비해 타인을 더 많이 의식하고 타인의 평가가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내재화에 영향을 주는 집합주의적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kus 와 Kitayama, 1991). 이런 경향은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상호영향을 통해 희석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의 상호작용이라는 면에서 같은 동아시아의 국가들이라 해도 서양문화에 어느 정도나 오랫동안 넓게 접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체평가의 소재에 있어서 서양문화에 접한 경험의 정도에 따라 한, 중, 일 삼국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도에 문화가 주는 영향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신체의 사회적 유용성

이는 신체의 외모(체형)과 건강(체기능)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도구적으로 유용한가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 즉, 외모와 건강이 연애나 결혼상대의 획득, 좋은 인상주기와 같은 대인관계나 취업, 승진, 업무성과와 같은 사회적 성취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신념이다. 신체의 특성은 짝을 선택하는데 매우 크게 작용한다.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이성에 대한 선호는 선택적이며 그 결과 특정 유형의 배우자에 대한 선호가 존재한다. 37개 문화권의 짝짓기 대상의 여러 특성의 중요성 평가에 관한 국제비교연구결과에 따르면, 외모라는 특성의 경우, 각국 남성들이 여성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미국 > 한국 >

일본 > 중국의 순이었다(Schackelford, Schmidt, & Buss, 2005). 현대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신체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지위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남성은 배우자 선택에서 여성의 신체적 외모와 젊음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한다(Buss & Schackelford, 2001, Buss, 2005에서 재인용). 이렇듯, 외모는 짝짓기 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영역에서도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과 청소년기의 부정적 외모특성은 따돌림을 당하는 중요한 이유일 수 있고(한중철과 김인경, 2000), 어떤 직업에서는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의 중요성이 더 크다. 마찬가지로, 건강 역시 대인관계와 직업구하기 등 여러 사회적인 유용성이 있을 수 있다.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와 같은 유교적 가치관에서 나타나는 신체의 조작성이나 편향성, 평가소재, 사회적 유용성과 같은 신체관련 가치들에 관해 전통적인 세계적 종교와 사회적 규범은 대체로 보수적이다. 아시아 삼국은 전통적 종교와 사회적 규범의 관점에서 중국 > 한국 > 일본 순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최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상업주의의 영향은 신체관련 가치 등에 대한 전통적 규범과는 반대가 되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아시아 삼국이 서구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노출된 정도와 양상은 대체로 일본 > 한국 > 중국의 순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비교문화 연구에서 동아시아 삼국을 동일문화권으로 구분하는 경향과 달리 여성들의 신체 가치들은 같은 문화권의 삼국 간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동아시아 삼국 여대생들의 신

체가치에 차이가 있는가.

신체존중감

신체가치는 신체가 가지는 일반적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다. 한편 자신의 신체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신념으로서 신체존중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신념인 자기존중감의 일부일 수 있고 그래서 주로 자기존중감의 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최근 신체존중감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다. 이는 신체존중감이 자기존중감과 행복(Diener, Wolsic, & Fujita, 1995; Pruzinsky, & Cash, 2002; 박은아, 2003 등) 뿐 아니라 부적응적 섭식행동(Garner, 2002; Stice, 2002), 대인관계(Kleck, & Strenta, 1980; Nezelek, 1999), 성기능 장애(Wiederrman, 2002) 등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화장과 성형수술, 몸매관리 서비스와 장비의 소비, 건강보조식품소비(Thompson, & Hirschman, 1995; 김완석과 김해진, 2005; 김완석과 차주화, 2006) 등 개인 삶의 여러 영역에 독립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신체이미지 연구에서 신체존중감은 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존중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념화했다. 이는 신체존중감 측정을 위해 개발된 척도들에도 반영되어 있어서, 최근 개발된 주요 신체존중감 척도들은 신체존중감을 외모와 체중에 대한 느낌이나 평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Mendelson, Mendelson, & Andrews, 2000; Pliner & Chaiken, 1990 등). 이는 아마도 서구의 연구들이 주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마른(thin)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과 부적응적

행동을 연구한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Harre(1991)가 주장하듯이, 체형 뿐 아니라 체기능도 개인의 신체영역으로 지각될 수 있으며, 그래서 신체존중감은 외모나 체중 뿐 아니라 신체의 기능에 대한 자기 평가나 느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년이나 노년의 경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나 긍정적 평가가 신체 존중감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실제로 Brown, Cash, & Mikulka(1990)는 신체영역을 외모(신체의 심미성) 뿐 아니라, fitness(신체의 효율성)와 건강/질병(신체의 통합성)을 포함하는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한 바 있고, Franzoi와 Shields(1984)는 신체존중감이 외모 뿐 아니라 체중, 건강을 포함하는 복합 구조임을 밝히기도 했다.

김완석(2007)은 한국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BES)를 개발한 바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체존중감은 외모 존중감과 체중존중감, 건강존중감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존중감이 자기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섭식장애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나 약물섭취, 미용을 위한 성형,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헌혈과 같은 신체관련 행동의 의도와 경험정도를 유의하게 예언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신체존중감은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불만족해 한다(Stiegel-Moore & Franko, 2002), 이런 결과는 한국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서, 여대생이 남대생에 비해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 체기능 존중감 모두 낮았다(김완석, 2007). 나이의 변화에 따른 신

체존중감의 변화양상은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외모존중감의 경우 여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낮아지지만, 남성은 상대적으로 덜 낮아지거나 오히려 증가하기도 한다(Whitbourne & Skultety, 2002). 연령으로 볼 때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시기는 12-15세이며,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한다. 또한 청소년기는 부정적인 신체이미지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시기이기도 하다(Levine & Smolak, 2002).

특히 신체존중감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은 사회문화적 변인이다. 미국의 백인 여성사회는 흑인 여성사회에 비해 이상적으로 지각하는 체중과 몸매의 크기가 더 작고 가늘며, 백인여성들은 흑인여성들에 비해 자신의 신체크기를 실제보다 더 크게 지각하고, 불만족도 더 높으며, 다른 하위인종 여성에 비해 신체존중감이 더 낮다(Celio, Zabinski, & Wilfey, 2002; Jackson & McGill, 1996 등). 최근의 연구들은 낮은 신체존중감이 부정적인 신체경험과 신체관련 행동을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젊은 백인여성들의 낮은 신체존중감은 앞서 논의한 것처럼 주로 상업주의 대량매체가 광고나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하는 지나치게 마른 외모상을 개인이 내면화한 결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상업주의 대중매체는 도달 불가능한 신체이상(ideal body)을 내면화하도록 하고 그 결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다(Levine & Smolak, 2002; Whitbourne & Skultety, 2002; Tiggemann, 2002, 2005; Fredrickson & Robert, 1997; Noll & Fredrickson, 1998). 그래서 매우 마른 모델을 등장시킨 프로그램이나 광고에 노출하는 것은 특히 여성 수용자의 신체존중감을 낮출 수 있다(Eisend & Moller, 2006).

이런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모두 개인수준의 연구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업주의 대량매체에 노출을 많이 하는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해 신체존중감이 더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주로 외모존중감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상업주의 대량매체가 건강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는 예상하기가 어렵다.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동아시아 삼국 여대생들의 외모, 체중, 건강 존중감에 차이가 있는가.

한편, 앞서 논의한 신체가치들은 현대의 대량매체가 전달하는 신체가치관들이 신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체가치는 일종의 기존 신념으로서 신체가치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들에 대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교생활을 성실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를 자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에 대해 더 부정적이고, 외모보다는 건강을 더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래서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가치들에 저항적일 수 있다. 그 결과 도달 불가능한 외모상을 내면화 할 가능성도 적고 외모존중감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전통적인 종교나 사회적 규범이 내포하는 신체가치와 자본주의 사회의 대량매체가 전달하는 신체가치는 서로 영향을 미쳐서 개인이나 사회의 신체가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이에 관한 연구들이 거의 없어서 가설을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신체가치와 신체존중감은 명백한 상관이 있을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신체가치들과 신체존중감 사이에 상관이 있는가.

신체존중감의 구조

김완석(2007)은 신체존중감 척도개발을 위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예상치 못했던 중요한 결과를 발견했는데, 이는 체형존중감(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을 포함한)과 체기능존중감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다. 즉, 남성의 경우에는 두 존중감간의 상관계수가 유의하지만 여성표본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남성과 달리 여성의 건강존중감은 주관적 안녕감이나 자기존중감 등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결과는 대학생표본을 포함하는 연구였던 김완석과 차주화(2006)의 자료에서 대학생 표본만을 분석해 본 결과에서도 일치하였다. 이렇듯, 대학생 표본에서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의 관계에 성별차이가 나타난 것은 “신체의 의미파악에 관해 성별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김완석, 2007, 247쪽)”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일부 있다. 예를 들어, Halliwell과 Duttmar(2003)는 신체의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남성은 신체를 단일단위로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 여성은 신체를 많은 부위들로 구성된 것으로 개념화해서 다면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p.682)”고 주장하고 이를 남성은 신체를 통합적(holistic)으로 개념화하는 반면에, 여성은 차별적(differentiated)으로 개념화하는 것으로 정리하

였다. 비슷하게, 신체부위별 존중감척도를 개발한 Franzoi와 동료들(Franzoi & Shields, 1984; Franzoi, Kessenich, & Sugrue, 1989)도 젊은 남성은 젊은 여성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젊은 여성은 신체부위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회구성주의 이론에 따르면, 개념들의 구성은 해당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삼국의 여대생들의 신체 존중감 개념이 동일한지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4 삼국여대생들의 신체존중감 하위요인들의 관계가 동질적인가.

연구방법

조사대상

한국(n=168), 중국(n=108), 일본(n=152)의 여대생 총 42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자료는 수도권의 A, E 대학과 대구의 D 대학에서 수집하였고, 중국자료는 한국의 A, J, W 대학에 속한 어학원에서 한국의 대학입학이나 편입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또는 현재 해당 대학에 다니는 중국학생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본자료는 Kwansai 대학과 Yamaguchi 대학에서 수집하였다. 각 표본의 평균연령은 한국이 20.5세(SD=2.7), 중국이 21.6세(SD=2.0), 일본이 18.7세(SD=.89) 였다.

측정도구

신체존중감 척도

김완석(2007)의 전반적 신체존중감척도(KOB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18문항짜리 4점 척도이다. 하위척도는 외모존중감(6문항), 체중존중감(3문항), 건강존중감(9문항)이다. 여대생 표본에서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91, .85, .86로 보고되었다.

신체가치척도-조작성(BVI-O)

이 척도는 김완석과 유연재(2007)가 개발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연적 변화에 반하는 인위적 조작이나 변형의 바람직성에 대한 신념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타고난 신체의 특성을 ~ 1)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2) 인위적으로 바꾸어도 괜찮다”, “사람의 외모는 ~ 1) 타고나는 것이어서 일부러 고치는 것은 좋지 않다, 2)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치는 것이 좋다” 와 같은 12개의 양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89로 보고되었다.

신체가치척도-편향성(BVI-I)

이 척도는 김완석과 유연재(2007)가 개발한 것으로서, 신체의 기능(건강)에 비해 신체의 외형(외모)을 얼마나 더 가치있는 것으로 믿는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멋진 몸매를 갖는 것 - 건강한/튼튼한 신체를 갖는 것”,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것 - 외모를 위해 투자하는 것”과 같은 9개의 4점짜리 의미 미분형 문항으로 구성되며, 척도의 신뢰도는 .88로 보고되었다.

신체가치척도-평가소재(BVI-LOE)

이 척도는 김완석과 차주화(2006)가 개발한 것으로서,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평가와

감정이 얼마나 타인의 관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며, “내가 외모를 꾸미는 것은 나 자신보다는 남들에게 예쁘게/멋있게 보이기 위해서이다”, “내가 건강을 위해 운동/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나 자신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와 같은 8개의 4점짜리 리커트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여성표본에서 .73으로 보고되었다.

신체가치척도-사회적 유용성(BVI-SU)

이 척도는 본 연구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서, 이성 관계, 대인 관계, 사회적 성취 등에 신체의 외모나 건강이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외모가 좋으면 마음에 드는 이성과 쉽게 사귄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건강한 신체는 큰 장점이다”와 같은 16개의 4점짜리 리커트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외국어판 척도개발

국가 간 비교연구를 위하여 척도별로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판을 각각 제작하였다. 신체존중감과 네 종류의 가치척도는 한국어판을 기본으로 해서 일본어와 중국어의 이중언어자로 하여금 1차 번역토록 하여 일본어판과 중국어판을 제작하였다. 이를 다시, 제 삼의 이중언어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이 검토 내용을 토대로 1차 번역자가 번역을 수정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신체존중감

각 국 표본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스

크리 방식으로 살펴본 결과, 삼국 표본 모두에서 3요인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인수를 셋으로 정하고 요인분석한 결과, 일본과 중국 표본에서는 일부 문항들이 예상과 다른 요인들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국 표본에서는 체중과 관련된 요인에 외모나 건강에 관한 부정문항들이 함께 적재되었고, 일본 표본에서는 체중과 관련된 요인에 외모에 관한 일부 문항들이 함께 적재되었다. 각국 자료의 삼요인 구조를 이루는 문항들을 비교한 결과, 외모존중감에 4개 문항, 체중존중감에 3개문항, 건강존중감에 4개의 문항이 삼국 표본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부하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 문항들만의 총점을 해당 존중감의 측정치로 삼았다.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신체가치척도-조작성(BVI-O)

각 국 표본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크리 방식으로 판단한 결과, 한국표본에서는 1개의 요인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과 일본표본에서는 2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중국표본에서 .46, 일본표본에서 .10으로 나타나 한 개의 요인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표본과 일본표본에서 더 많은 문항들이 속한 요인들에 포함된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공통적인 5개의 문항과 2요인 구조에서 커뮤니티가 높은 문항 2개를 선정하여 총 7개의 공통문항을 선택하여 그 총점을 조작성의 측정치로 삼았다. 이들 7개 문항을 다시 요인분석한 결과 각국 표본에서 모두 단일요인으로 드러났다. 척도의 내적합치도계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각 척도들의 각국 표본별 내적합치도 계수 및 점수범위 요약

척도	한국	중국	일본	문항수	점수범위	중간값
신체 조작성(BVI-O)	.79	.71	.72	7	7-14	10.5
신체 편향성(BVI-I)	.75	.78	.75	5	5-20	12.5
신체 평가소재(BVI-LOE)	.75	.60	.72	8	4-32	20.0
신체 사회적유용성(BVI-SU)						
전체	.79	.82	.75	12	12-60	36.0
외모	.79	.75	.69	6	6-30	18.0
건강	.82	.83	.81	6	6-30	18.0
신체존중감(BES) - 전체	.81	.77	.75	11	11-44	27.5
- 외모	.79	.82	.83	4	4-16	10.0
- 체중	.87	.67	.78	3	3-12	7.5
- 건강	.78	.72	.65	4	4-16	10.0

신체가치척도-편향성(BVI-I)

각 국 표본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크리 방식으로 판단한 결과, 한국표본에서는 1개의 요인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과 일본표본에서는 2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중국표본에서 .23, 일본표본에서 .02로 나타나 한 개의 요인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문항이 속하는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 5개만으로 척도를 구성하였고 그 총점을 편향성 측정치로 삼았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계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신체가치척도-평가소재(BVI-LOE)

각 국 표본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크리 방식으로 판단한 결과, 삼국 표본 모두에서 1개의 요인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 문항의 총점을 평가소재의 측정치로 삼았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신체가치척도-사회적 유용성(BVI-SU)

각 국 표본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크리 방식으로 판단한 결과, 삼국 표본 모두에서 2개의 요인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본에 따라 외모의 유용성에 관한 일부 문항들이 건강의 유용성에 관한 요인들에 함께 적재되기도 하였다. 삼국 표본의 두 요인들에 공통적으로 높은 부하량을 가진 문항들만을 추린 결과, 외모유용성에 6개의 문항, 건강유용성에 6개의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항의 총점을 각 유용성의 측정치로 삼았다. 각 하위척도의 표본별 내적합치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결 과

연구문제 1. 삼국여대생의 신체가치에 차이가 있는가?

표 2는 각 신체가치의 국가별 평균과 검증 결과이다.

신체조작성은 국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420) = 4.135, p < .05$. 사후검증 결과, 한국과 일본 여대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둘 모두 중국대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1, p < .01$ 각각. 즉, 한국과 일본대생이 중국대생에 비해 신체의 자의적 통제에 대한 신념이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편향성에서도 국가 간 차이는 유의해서, $F(2, 419) = 2.958, p < .10$, 한국 여대생이 일본이나 중국 여대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p < .05$ 각각. 이는 한국 여대생들이 일본이나 중국 여대생에 비해 건강에 비해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평가소재에서는 국가 간 차이가 있어서, $F(2, 418) = 22.230, p < .001$,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비해 신체에 대한 평가소재가 내부보다는 외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p < .01$ 각각. 이는 한국과 일본 여대생이 중

국 여대생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에서 타인의 관점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간에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가치가 사회적 유용성이었다. 외모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국가 간 차이가 있었으며, $F(2, 412) = 120.568, p < .001$, 사후검증 결과에서도 삼국 간의 차이는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한국 여대생이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가장 크게 믿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여대생과 중국 여대생의 순이었다. 이는 건강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건강의 유용성에 대한 신념이 높았다, $F(2, 412) = 51.998, p < .001$.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여대생들은 신체조작성과 신체평가소재에서 일본여대생들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편향성과 사회적 유용성에서는 오히려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비해 중국 여대생들은 모든 신체가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체가치들에 관해 한국 여성들이 가장 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 여대생들이 가장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한국 여대생들은 일본과 중국 여대생들에 비

표 2. 신체가치들의 국가별 평균(표준편차)

척도	하위척도	한국	중국	일본	F-value	사후검증 (LSD)
신체가치	조작성	10.5 (2.24)	10.0 (2.09)	10.8 (2.09)	4.135**	일, 한 > 중
	편향성	10.1 (2.94)	9.3 (3.63)	9.4 (2.47)	2.958*	한 > 일, 중
	평가소재	20.0 (3.36)	17.5 (2.91)	19.8 (3.25)	22.230***	한, 일 > 중
	유용성-외모	21.9 (3.52)	15.3 (3.18)	18.6 (3.62)	120.568***	한 > 일 > 중
	유용성-건강	21.2 (3.73)	16.5 (3.45)	18.7 (4.13)	51.998***	한 > 일 > 중

주. *** $p < .01$, ** $p < .05$, * $p < .10$

해 신체의 자의적 조작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며, 건강보다는 외모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자기 신체에 대한 평가에 타인의 관점을 더 크게 의식하며, 외모나 건강의 사회적 쓸모를 더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문제 2. 삼국 여대생의 신체존중감에 차이가 있는가?

표 3은 신체존중감의 국가별 평균과 차이검증 결과이다.

신체존중감의 전체 평균에서 국가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F(2, 408) = 8.067, p < .001$. Scheffe 방식으로 사후 검증한 결과, 한국과 중국의 여대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한국과 중국 모두 일본 여대생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1$ 모두. 하위요인별로

보면, 외모존중감은 한국, 중국, 일본의 순으로 높았고 그 차이는 유의했다, $F(2, 410) = 42.542, p < .001$. 하지만, 체중존중감은 중국 여대생이 가장 높아서 한국이나 일본 여대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F(2, 410) = 10.219, p < .001$, 반대로 건강존중감은 일본 여대생이 한국이나 중국 여대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F(2, 409) = 8.792, p < .001$.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여대생은 외모존중감이 가장 높고 건강존중감은 가장 낮으며, 이에 비해 일본 여대생은 외모존중감이 가장 낮으면서 건강존중감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대생은 체중존중감이 삼국 중 가장 높고 외모나 건강존중감은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중간수준이었다.

연구문제 3. 신체가치와 신체존중감의 관계

표 3. 신체존중감의 국가별 평균(표준편차)

척도	하위척도	한국	중국	일본	F-value	사후검증 (LSD)
신체존중감	전체	27.7 (4.67)	28.1 (4.32)	26.0 (4.34)	8.067***	한, 중 > 일
	외모존중감	9.5 (1.87)	8.6 (2.41)	7.2 (2.14)	42.542***	한 > 중 > 일
	체중존중감	7.4 (2.37)	8.2 (1.73)	7.0 (2.15)	10.219***	중 > 한, 일
	건강존중감	10.9 (1.86)	11.1 (2.00)	11.8 (1.76)	8.792***	일 > 중, 한

주. *** $p < .01$, ** $p < .05$, * $p < .10$

표 4. 신체존중감과 신체가치의 상관행렬

신체존중감	신체가치				
	조작성	편향성	평가소재	외모유용성	건강유용성
외모	-.141**	.055	-.021	.138**	.222**
체중	-.072	-.240**	-.241**	-.135**	-.044
건강	-.061	-.053	.001	-.044	.059

주. n = 400~423, 셀에 따라; **, $p < .01$

개인수준의 분석

개인수준의 분석을 위해 삼국의 자료를 모두 합해서 신체가치와 신체존중감의 상관계수를 구한 것이 표 4이다.

신체가치 조작성은 외모존중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에 있어서, 신체의 자의적 조작을 허용할수록 신체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편향성과 신체평가소재는 체중존중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에 비해 외모를 중시할수록, 신체평가의 소재가 타인에 있을수록 체중존중감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신체가치의 사회적 유용성은 예상과 달리 외모존중감과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외모나 건강의 사회적 유용성을 크게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외모존중감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모유용성은 체중존중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서,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크게 지각할수록 체중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신체가치들은 신체존중감과 역상관을 갖는 경향이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신체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신념은 외모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분석

이 같은 결과들이 각 국의 표본 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각 국별로 신체가치와 신체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다(표 5).

신체조작성은 한국표본에서는 외모와 건강과 유의한 역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표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편향성은 체중에서만 삼국표본 모두에서 유의미한 역상관이 있었고, 평가소재는 일본표본에서만 체중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의외로 외모유용성은 삼국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유용성은 표본에 따라 상관의 양상이 상당히 달랐는데, 한국표본에서는 건강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

표 5. 국가별 신체존중감과 신체가치의 상관행렬

	신체존중감	신체가치				
		조작성	편향성	평가소재	외모유용성	건강유용성
한국	외모	-.245**	-.141	-.048	-.100	.127
	체중	-.119	-.276**	-.097	-.103	.098
	건강	-.187*	-.101	.054	.003	.181*
중국	외모	-.028	.147	-.075	.050	.168
	체중	.008	-.195	-.163	.095	.210*
	건강	-.019	.017	-.087	.063	.095
일본	외모	-.079	.036	.050	.112	.172*
	체중	.026	-.274**	-.340**	-.105	-.183*
	건강	.018	.003	-.029	-.046	.034

주. **: $p < .01$, *: $p < .05$

있고, 일본표본에서는 외모존중감과 정적인, 체중존중감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중국 표본에서는 체중존중감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개인수준의 분석과 국가수준의 분석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대체로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 신체평가소재는 두 수준의 분석결과가 비교적 일치해서,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신체조작성은 외모존중감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신체편향성과 신체평가소재는 체중존중감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가소재와 사회적 유용성의 경우는 두 수준의 분석결과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연구문제가 국가에 관계없이 신체가치와 신체존중감이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사회적 유용성의 경우 국가 간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잠정적으로 신체유용성도 신체존중감과 상관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수준의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외모유용성이나 건강유용성이 외모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에 대해서는 추후 그 현상의 안정성과 의미에 대해 더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문제 4. 삼국여대생들의 신체존중감 하위요인들의 관계

삼국자료를 통합한 개인수준 분석결과, 외모존중감은 체중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r = .372, p < .01, n=412$, 건강존중감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r = .131, p < .01, n=411$, 체중존중감과 건강존중감의 상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6. 국가별 존중감 하위요인들의 상관 행렬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
한국	체중존중감	.496**	1
	건강존중감	.269**	.106
중국	체중존중감	.213*	1
	건강존중감	.311**	.189
일본	체중존중감	.388**	1
	건강존중감	.147	.048

표 6은 국가별 분석을 위해 국가 별로 존중감 하위요인들의 상관관계를 계산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외모존중감은 체중존중감이나 건강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체중존중감과 건강존중감의 상관계수도 유의하지 않아서 개인수준의 분석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외모존중감과 다른 존중감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의 상관크기는 한국, 일본, 중국의 순이며, 외모존중감과 건강존중감의 상관관계는 중국이 가장 컸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외모존중감이 건강존중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한국의 경우 외모와 체중존중감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반면, 중국은 가장 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일본의 경우 외모존중감과 건강존중감은 독립적인 반면, 한국과 중국의 경우는 외모존중감과 건강존중감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신체가치들에서 삼국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근래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경험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신체가치들은 대체로 일본이 가장 점수가 높고, 중국이 가장 낮으며, 한국이 중간 정도일 것으로 잠정적인 가정을 했었지만, 이런 가정은 중국 여대생에 관해서만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조작성과 편향성, 평가소재, 사회적 유용성 모두 전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중국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까지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중국의 여대생들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종교와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보수적인 신체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신체가치관에서는 신체조작성 차원을 제외하면 한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더 자본주의적 신체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다는 외모를 중시하는 신체편향성과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신념인 외모유용성과 건강유용성은 한국이 일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역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경험한 역사가 일본에 비해 오히려 짧음에도 이 같은 현상을 보인 것은 어쩌면 최근 경쟁적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가치관 변화가 여대생들의 신체가치관에도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외모에 대한 관심, 즉 젊은이들 사이에서 얼짱, 몸짱 등의 용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연예인들 뿐 아니라 젊은 여성들의 성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과 실제 실천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들은 이같은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체존중감 전체점수에서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이 일본 여대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런 결과는 대체로 가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체존중감의 하위요인별로 비교해보면 삼국 여대생간의 차이는 매우 독특했다. 즉, 삼국 여대생 중에서 외모존중감은 한국이 가장 높았고, 체중존중감은 중국이, 건강존중감이 일본이 가장 높았다.

한국 여대생은 외모존중감이 가장 높고, 건강존중감은 가장 낮았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아직 힘들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신체가치관과 관련시켜 보면, 한국여대생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신체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신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매우 큰 바, 이런 관심과 투자가 건강증진보다는 외모증진에 주로 집중되면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즉, 외모증진에는 도움이 되지만 건강증진에는 오히려 해로운 과도한 다이어트나 성형과 같은 부적응적 방식의 신체관리에 치중한 결과일 수 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은 그러한 사회에서 자본으로서의 외모의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또한 한 국가의 경제와 복지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건강에 관심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 여대생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존중감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훨씬 발달한 일본의 경제 및 복지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외모와 체중은 건강에 비해 외부에 쉽게 드러나며 타인에 의한 평가에 좀 더 민감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신체의 평가소재가 외부에 있을 경우, 외모나 체중존중감이 건강존중감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중국 여대생은 체중존중감이 가장 높고, 외모나 건강존중감은 한국과 일본의 중간수준이었다. 이는 중국 여대생들이 아직은 일본이나 한국여대생에 비해 체중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

으로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나 일본,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관리에서 체중조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석이 가능한 결과이다.

일본 여대생은 외모나 체중존중감은 가장 낮지만, 건강존중감에서는 가장 높았다. 장수 국가로서 일본의 건강한 섭식문화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바, 이런 점들이 높은 건강존중감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외모나 체중존중감이 낮은 현상은 삼국 중 가장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신체 특히 외모의 객체화나 자본화가 더 심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신체가치와 신체존중감의 관계에서 특히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 평가소재는 개인수준의 분석이나 국가수준의 분석 모두에서 외모존중감이나 체중존중감과 일관성있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신체를 자의적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믿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외부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질수록 자신의 외모나 체중에 대한 존중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적 유용성의 경우는 외모유용성과 건강유용성이 신체존중감과 일관성있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개인수준과 국가수준 분석의 결과도 달랐다. 사회적 유용성 척도가 아직 안정된 척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이에 관해 결론이나 추론을 하는 것은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모유용성은 한국과 일본표본에서는 신체존중감 하위요인들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중국표본에서는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 그리고 건강유용성은 체중존중감과 중국표본에서는 정적인, 일본표본에서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 점은 유용성 개념이 국가수준의 발달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이들 개념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신체존중감 중에서 건강존중감은 개인수준과 국가수준 분석 모두에서 신체가치들과 아무런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런 결과는 여대생의 경우 건강존중감이 여대생들의 신체경험과 신체관련 행동에 거의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김완석과 차주화, 2006; 김완석과 유연재, 2007).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삼국표본의 신체존중감 하위요인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재미있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즉,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의 상관관계는 한국이 .50에 이르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그 다음으로 일본이 .38인데 비해 중국은 .21에 불과하며, 반대로 외모존중감과 건강존중감의 상관관계는 일본의 경우 .14로 유의하지 않고, 한국은 유의하지만 .27로 비교적 작으며, 중국은 .3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될수록 개인의 외모와 건강이 독립적인 개념으로 분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즉, 앞서 논의한 것처럼 성별 수준에서 있을 수 있는 ‘신체의 의미과악에 관한 차이’의 가능성(김완석, 2007; Halliwell & Dittmar, 2003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전통적인 사회에서 신체의 외모와 건강은 구분해서 개념화되지 않는데 비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심화될수록 최소한 여대생에서 건강은 외모와 거의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것으로 분화되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일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첫째, 일반적으로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국가들로 간주한 동아시아 삼국의 여대생들의 신체관련 가치관과 신체존중감에는 유의한 차

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여대생은 중국여대생에 비해 덜 보수적인 신체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체존중감은 하위요인에 따라 국가 간 차이가 많다.

둘째, 삼국 여대생의 신체가치들은 신체존중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 대체로 신체가치가 덜 보수적일수록 신체존중감은 낮은 경향이 있다. 즉, 신체의 자의적 조작에 대해 관대할수록, 건강보다는 외모를 중시할수록, 자기신체에 대한 평가가 외부적 관점에서 이루어질수록 외모나 체중존중감이 낮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건강존중감은 신체가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셋째, 신체가치는 신체이미지 연구에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신체가치의 경우는 지금까지 신체이미지와 관련해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개념이었지만, 본 연구에서 신체존중감과 관련성이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처음 개념화하고 측정을 시도한 신체편향성과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개념은 아직 척도개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신체이미지 연구에서 매우 쓸모가 있을 것이다.

넷째, 신체존중감을 외모존중감만으로 다루기보다 체중존중감과 건강존중감을 포함하는 복합개념으로 다루는 것이 쓸모가 있다. 체중존중감은 일반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외모존중감과 통합해서 사용하거나 따로 사용하거나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이 국가에 따라 그 상관의 크기가 다르다는 결과는 체중존중감을 외모존중감과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건강존중감은 신체가치들과 거의 상관이 없었지만, 외모존중감이나 체중존중감과는 표본에 따라 상관의 정도가 매우 달랐다. 이런 결과는 건강

존중감이 신체이미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남성표본과 다양한 연령대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삼국 간 여대생들의 신체가치 및 존중감에 차이를 탐색하는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경험차이를 주된 변인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대략적 예측이 일부 지지되었으며 또한 일부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여성들의 신체가치와 신체존중감 양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이라는 거시적 단일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신체이미지를 대중매체의 영향만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나 이를 토대로 한 서구의 연구들이 제한적으로만 타당함을 가짐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를 국가수준과 개인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복합적 변인들을 고려한 다각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예컨대, 같은 발달단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개인이 가지는 개인주의나 집합주의의 수용정도는 이들의 신체가치나 신체존중감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모존중감은 사회적 유용성과의 관련으로 인해서 타인들의 시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건강존중감은 타인들의 시선에 좀 더 자유로울 것이며 개인의 안녕과 더 관련이 있으므로 개인주의와 관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많은 연구들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 본 연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향후 연구들은 더욱 다양한 범위의 표본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다양한 신체가치들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노출한 결과이자 동시에 또 다른 환경노출의 영향을 조절하는 조절변수일 수 있으며, 이런 영향과정은

하위문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처럼 신체존중감을 건강을 포함하는 복합개념으로 다루는 것은 특히 남성보다 더 나이든 연령층의 신체이미지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완석 (2007).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BES): 개발 및 성차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231-253.
- 김완석, 김철민 (2002). 몸의 심리학: 몸에 대한 생각과 소비행동.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0.
- 김완석, 유연재 (2007). 신체가치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신체조작성척도와 신체편향성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21.
- 김완석, 차주화 (2006). 신체가치와 소비행동: 척도개발과 활용을 위한 탐색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7(3), 455-485.
- 박은아 (2003). 신체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35-56.
- 한종철, 김인경(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03-114.
- Brown, T. A., Cash, T. F., & Mikulka, P. J. (1990). Attitudinal body image assessment: Factor analysis of the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1&2), 135-144.
- Brown, T. A., Cash, T. F., & Lewis, R. J. (1989). Body-image disturbances in adolescent female binge-purgers: A brief report of the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in the U.S.A.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30, 605 - 613.
- Buss, D. M. (2005). 마음의 기원(김교현, 권선중, 이홍표 역). 서울: 나노미디어. (원본출판년도는 1999).
- Celio, A. A., Zabinski, M. F., & Wilefey, D. E. (2002). African american body image.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234-242). New York: Guilford.
- Diener, E., Wolsic. B., & Fujita, F. (1995). Physical attractive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1), 120-129.
- Eisend, M., & Moller, J. (2006). The influence of TV viewing on consumers' body images and related consumption behavior. *Market lett*, DOI 10.1007/s 11002-006-9004-8.
- Franzoi, S. L., & Kessenich, J. J., & Sugrue, P. A. (1989). Gender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of body awareness: An experiential sampling study, *Sex Roles*, 42(9/10), 887-915.
- Franzoi, S. L., & Shields, S. A. (1984). The body esteem scale: Multidimensional structure and sex differences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2), 173- 178.
- Fredrickson, B. L., Roberts, T-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206.
- Garner, D. M. (2002). Body image and anorexia nervosa.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295-303). New York: Guilford.
- Georgas, J., & Berry, J. W. (1995). An ecocultural taxonomy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Cross-Cultural Research*, 29(2), 121-157
- Gluck, M. E., & Geliebter, A. (2002). Racial/ethnic differences in body image and eating behaviors. *Eating Behaviors*, 3, 143-151.
- Hall, C. C. (1995). Asian eyes: Body image and eating disorders of Asian and Asian American women. *Eating Disorders*, 3, 8-19.
- Halliwell, E., & Dittmar, H. (2003).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women's and men's body image concerns and their attitudes toward aging. *Sex Roles*, 49, 675-684.
- Harre, R. (1991). *Physical Being: A Theory for a Corporeal Psychology*. Oxford: Blackwell.
- Harrison, K. (2000). The body electric: Thin-ideal media and eating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50, 119 - 143.
- Jackson, L. A., & McGill, O. D. (1996). Body type preferences and bod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attractive and unattractive bodies by African Americans and Anglo Americans. *Sex Roles*, 35, 295-307.
- Jaeger, B., Ruggiero, G. M., Edlund, B., Gomez-Perretta, C., Lang, F., Mohammadkhani, P., Sahleen-Veasey, C., Schomer, H., & Lamprecht, F. (2002). Body dissatisfaction and its interrelations with other risk factors for bulimia nervosa in 12 countries.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71, 54 - 61.
- Kleck, R. E., & Strenta, A. (1980). Perceptions of the impact of negatively valued physical characteristics o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61-873.
- Levine, M. P., & Smolak, L. (2002). Body image development in adolescence.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74-82). New York: Guilford.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215.
- Mendelson, M., Mendelson, B. K., & Andrews, J. (2000). Self-esteem, body esteem, and body-mass in late adolescence: Is a competence X importance model neede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249-266.
- Mintz, L. B., & Kashubeck, S. (1999). Body image and disordered eating among Asian American and Cauc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3, 781-796.
- Mukai, T., Kambara, A., & Sasaki, Y. (1998). Body dissatisfaction, need for social approval, and eating disturbances among Japanese and American college women. *Sex Roles*, 39, 751-763.
- Nemeroff, C. J., Stein, R. I., Diehl, N. S., & Smilack, K. M. (1994). From the Cleavers to the Clintons: Role choices and body orientation as reflected in magazine article cont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 Disorders*, 16, 167 - 176.
- Nezlek, J. (1999). Body image and day-to-day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67, 793-817.
- Nisbett, R. E. (2004). *생각의 지도(최인철 역)*. 서울: 김영사. (원본 출판년도는 2003).
- Noll, S. M., & Fredrickson, B. L. (1998). A mediational model linking self-objectification, body shame,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and Women Quarterly*, 22, 623-636.
- Pliner, P., & Chaiken, S. (1990). Gender differences in concern with body weight and physical appearance over the life s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 (2), 263-273.
- Pruzinsky, T., & Cash, T. F. (2002). Understanding body image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3-12). New York: Guilford.
- Schackelford, T. K., Schmidt, D. P., & Buss, D. M. (2005). Universal dimensions of human mate prefer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447-458.
- Shilling, C. (2000). *몸의 사회학(임인숙 역)*. 서울: 나남출판. (원본 출판년도는 1993).
- Smolak, L. (2002). Body image development in children.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65-73). New York: Guilford.
- Stice, E. (2002). Body image and bulimia nervosa.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304-311). New York: Guilford.
- Stiegel-Moore, R. H., & Franko, D. L. (2002). Body image issues among girls and women.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183-191). New York: Guilford.
- Thompson, C. J., & Hirschman, E. C. (1995). Understanding the socialized body: A poststructuralist analysis of consumers' self-conceptions, body images, and self-care pract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 139-153.
- Tiggemann, M. (2002). Media influences on body image development.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142-154). New York: Guilford.
- Tiggemann, M. (2005). Body dissatisfaction and adolescent self-esteem: Prospective findings. *Body Image*, 2, 129-135.
- Whitbourne, S. K., & Skultety, K. M. (2002). Body image development: Adulthood and aging.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83-90). New York: Guilford.
- Wiederman, M. W. (2002). Body image and sexual functioning.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287-294). New York: Guilford.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09. 29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11. 22

Body-Related Values and Body-Esteem in East Asian Women: A Cross-National Study Focusing o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Wan-Suk Gim

Ajou University

Jungsik Kim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body-related values, body-este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based on the survey data drawn from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ree East Asian countries(Korea, Japan, and China). 168 Korean, 108 Chinese, and 152 Japanese female college students responded to questions designed to measure four sorts of body values (operability, inclination, locus of evaluation, and social utility) and four dimensions of body esteem (appearance, weight, health, overall). The results showed that body-related values and body-esteem differ among three countries. Japanese showed the highest acceptance level for the voluntary body alteration(operability), while chinese scored the lowest. Inclination to body appearance over health was higher in Korean than in Japanese and in Chinese. Korean also evaluated the importance of body appearance and its social utility the highest, followed by Japanese and Chinese. There were dramatic differences in body esteem between Korean and Japanese. Regarding body-esteem, Korean showed the highest appearance-esteem, but the health-esteem was the lowest. On the contrary, Japanese showed the highest health-esteem, but the appearance-esteem was lowest. Chinese showed the highest weight-esteem. Four sorts of body value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appearance-esteem and weight-esteem, respectively but not with health-esteem. Overall, the result supported the prediction that differen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backdrops in three countries would be related with different body-related values and body esteem in the female college students.

Key words : Body-Values, Body-Esteem, Cross-National study